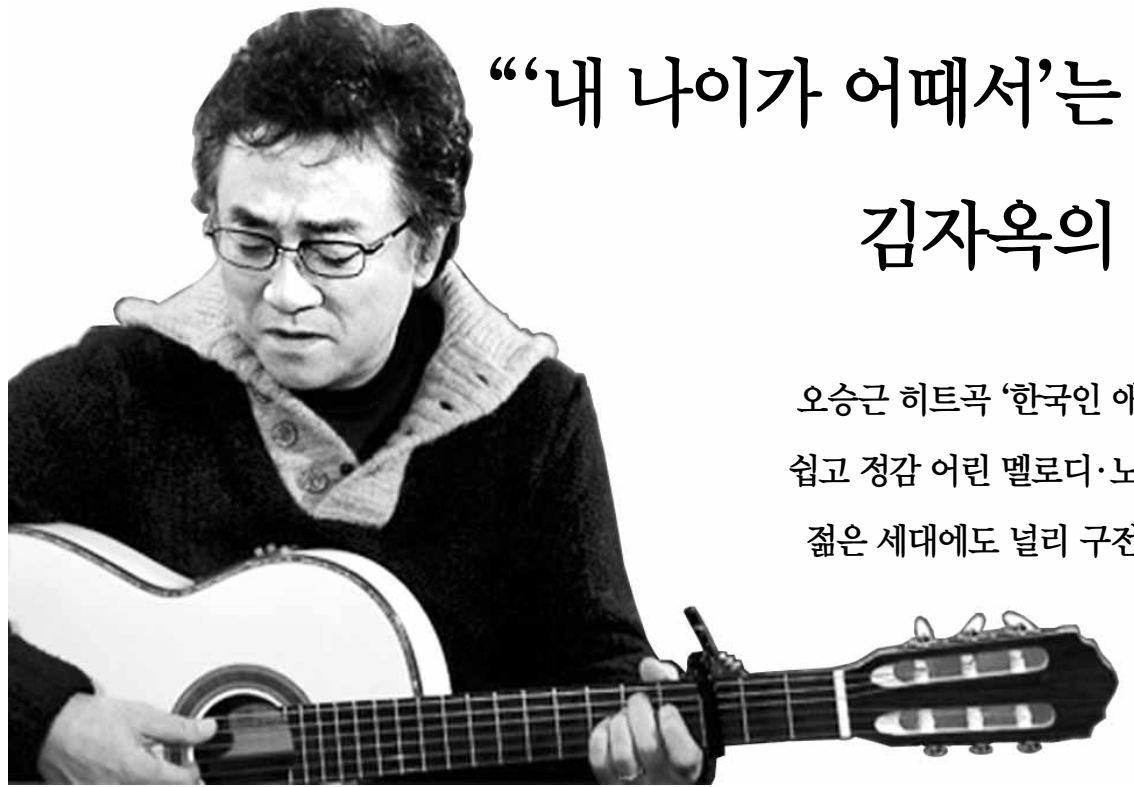


TV 3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Table with columns: 채널A, KBS1, KBS2, MBC, KBC/SBS. Rows list various TV programs like '40 아침뉴스', '30 내조의 여왕', '40 채널A뉴스', '50 김부자의 뉴스통', etc.



“내 나이가 어때서”는 김자옥의 선물

오승근 히트곡 ‘한국인 애창곡’ 1위 쉽고 정감 어린 멜로디·노랫말 공감 젊은 세대에도 널리 구전되며 인기

“아내가 떠나기 전 선물해준 것 같아요.” 지난해 11월 세상을 떠난 배우 김자옥의 남편인 가수 오승근(64)은 ‘내 나이가 어때서’가 국민 히트곡으로 떠오르자 부인의 덕이라며 공을 돌렸다. 그는 2일 전화 인터뷰에서 “처음에 대모곡을 받았을 때 감이 안 잡혔는데 아내가 노래를 듣고는 ‘내가 쉽게 부를 정도면 사람들이 많이 따라부를 것 같다’고 애기해 선택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별히 홍보하지 않았지만 사람들이 좋아해 준 건 아무래도 ‘내 나이가 어때서’란 제목과 노래 가사가 공감을 불러일으킨 것 같다. 보통 대화를 하다가도 “나이 들어 뭐 하겠느냐”고 하면 “내 나이가 어때서”라고 말하지 않나. 하하. - 김자옥 씨가 살아계셨다면 무척 좋아했을 것 같다. ▲아내가 정신이 있을 때면 마치 유언처럼 “아빠(오승근) 노래 열심히 해. 영환이(아들) 하고 예쁘게, 행복하게 살아야지”라고 애걸 했다. 지금도 그 애걸 떠올리면 마음이 콩글하다. - 마음은 좀 추슬렀나. ▲조금 나아졌지만 몇 년이 지나면 모를까 아직 실감이 안 난다. 살아있는 것만 같다. 아내가 외국에서 유학하는 아들 곁에 갈게는 9개월까지 가 있는 적도 있고, 배우니까 촬영 때문에 집을 비운 적도 있어 마치 외국 여행 가있는 듯하다. 유품을 꽤 정리했는데 나하고 같이 쓴 거구도 여전히 있고, 내게 남긴 메모도 갖고 있다. 메모에는 좋은 내용도 있고 나쁜 내용도 있는데 아내가 나쁜 글은 아들한테 줘야 보더라. 아들이 “아빠 읽지 마세요”라고 하더라. 얼마나 나를 아담진 글이기에.(웃음) - 이달 아들이 결혼하는데 부인이 참석하지 못해 주위에서도 안타까워했다. ▲아들이 3월 14일 화이트데이에 결혼하는데 이 날짜도 애엄마가 10개월 전에 잡아둔 거다. 결혼식을 못 보고 간 게 안타깝다. 아내가 (아들) 결혼 준비를 나 몰래 다 해놨더라. 엄마가 할 수 있는 걸 준비해두고 ‘어디 가서 어떻게 하라’고 메모도 해 줬다. “하늘의 여자”란 곡을 부인 추모곡으로 발표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신곡 발표 계획은. ▲‘하늘의 여자’를 녹음은 했지만 아내가 떠난 지 얼마 안 됐고 추모곡을 내겠다. 아직 발표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다. 대신 지난해 5월 발표한 ‘즐거운 인생’이란 곡으로 방송 활동을 시작하려 한다. ‘내 나이가 어때서’에 이은 신곡인데 아내가 내 곁을 떠나며 힘이 나지 않아 방송 활동을 안 했다. 아들 결혼식 키고서 4월부터는 해볼까 한다.

“내 나이가 어때서”가 ‘한국인 애창곡’ 1위로 뽐냈는데. ▲매우 기쁘고 감사하다. 2012년 출시 당시 행사장과 방송에서 부르던 50~60대에서 반응이 무척 좋았고 노래교실에서도 100% 불리는 노래였다. 하지만 3년이 흘러 중장년층을 넘어 여러 세대에 불리니 기분이 좋다. 2011년 ‘있을 때 잘해’가 히트한 후 중간에 신곡 두 곡을 냈지만 크게 주목받지 못했으니 대략 15년 만에 널리 사랑받은 셈이다. - 노래의 히트 비결이 뭐라고 여겨나.

EBS1

Table listing EBS1 programs such as '05:00 EBSe 생활영어', '06:10 EBS 인문학 특강', '07:00 우당탕탕 아이쿠', etc.

EBS2

Table listing EBS2 programs such as '07:00 2015년 공인중개사 시험대비강좌', '08:30 견정고시교육 강좌', etc.

EBS플러스1

Table listing EBS Plus 1 programs such as '00:00 올림포스 <국어 I-일주제개념>', '01:40 <문학-일주제개념>', etc.

EBS플러스2

Table listing EBS Plus 2 programs such as '07:00 2015년 공인중개사 시험대비강좌', '08:30 견정고시교육 강좌', etc.

“제대 후 첫 작품이라 많이 기대돼요”

영화 ‘조선 마술사’ 주인공 환희 역 유승호



유승호(22)의 전역 후 첫 작품인 영화 ‘조선 마술사’가 최근 촬영을 시작했다고 이 영화 투자·배급을 맡은 롯데엔터테인먼트 트가 2일 밝혔다. ‘조선 마술사’는 위대한 사랑에 빠진 조선 최고의 마술사가 거대한 음모에 휩싸여 운명을 거스르게 되는 얘기를 그리는 영화다. 유승호는 조선시대 최고의 마술사 ‘환희’ 역을 맡아 촬영 전부터 마술 연습을 통해 단련된 수준급의 마술 실력을 선보일 예정이다. 유승호는 “제대 후 첫 작품이라 많이 기대가 된다”며 “2년이 된 공백이 지탄엔 참 컸고 ‘내가 잘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다. 확실한 건 2년 전보다는 책임감을 더 가지고 해야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장에서 익숙해지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할 수 있는 만큼 열심히 해보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고아라가 환희와의 만남으로 운명을 거스르려는 궁주 ‘청명’ 역을 맡았다. 이와 함께 당대의 마술사로 과거의 일로 환희에게 복수를 다짐하는 ‘귀물’ 역은 광도원이, 침술과 연변·미모를 겸비한 눈먼 기생 ‘보은’ 역은 조은희가 각각 맡았다. ‘반지점프를 하다’(2000)·‘혈의 누’(2005)·‘후궁: 제왕의 첩’ (2012) 등을 연출한 김대승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다. 1000만 관객을 동원한 ‘변호인’을 제작한 위터스필름의 두 번째 작품이다. 영화는 4개월간 촬영을 한 뒤 올 하반기 개봉할 예정이다.

KBS ‘파랑새의 집’ 4회만에 최현경 작가 하차

건강 문제로 ‘칸타빌레’ 박필주 작가로 교체



이준혁, 이상엽, 최명길, 천호진 등이 출연하는 50부작 드라마 ‘파랑새의 집’은 힘든 현실 때문에 연애, 결혼, 출산의 꿈을 접은 이른바 ‘삼포 세대’ 젊은이들과 그 부모들의 이야기다. 전일 방송된 4화는 26%의 시청률(닐슨코리아·전국 기준)을 기록했다. /연합뉴스

지난달 21일 방송을 시작한 KBS 2TV 주말드라마 ‘파랑새의 집’ 작가가 4회 만에 교체됐다. 2일 ‘파랑새의 집’ 제작진에 따르면 드라마를 집필하던 최현경 작가가 건강 문제로 작품에서 하차했다. 작년 KBS 2TV에서 방영된 드라마 ‘내일도 칸타빌레’의 박필주 작가가 오는 7일 방송되는 5회부터 대본을 이어갈 예정 이다.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3월 3일(음 1월 13일 戊寅)

Table with columns: Day (子, 丑, 寅, 卯, 辰, 巳, 午, 未, 申, 酉, 戌, 亥), Birth Year (e.g., 48년생, 49년생), and Fortune (행운의 숫자). Includes zodiac signs and birth years.